

# 北, 쌀 지원 이의제기로 회담 '난항'

## 남북장관급회담 오늘 종료... 다른 의제는 논의 못해

북한이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대북 쌀 차관 제공이 지연되는데 대해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회담이 1일 끝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도 의문이다.

북측 단장인 권오용 내각 책임참사는 회담 사흘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수석대표 접촉에서 쌀 차관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고경민 남북 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수석대표 접촉에서는 쌀 차관 제공 문제에 대해 다른 의제들은 사실상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측은 신의로써 쌀 차관을 제공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현실적으로 합의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문제 해결에 대해 쌍방이 방법을 찾자고 강조했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수석대표 접촉에서는 쌀 차관 제공 문제에 대해 다른 의제들은 사실상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수석대표 접촉에서 "지난 20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들을 남북이 성의를 갖고 이행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쌀 차관 제공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박상범 KBS 지회장 등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지회장단이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합의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청와대 민원실을 방문, 협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누구를 위해 취재 제한하나"

기자협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항의 서한 청와대 전달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지회장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합의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청와대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36명의 지회장들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취재를 제한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언론의 취재제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결국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새나가는 것이 싫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종철군 고문치사의 진실이 출입기자와 이력저널 얘기를 나누던 대검 건부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들며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대로 하면 당시 치안본부 공보관실에 의뢰해 해당 고문 경찰관을 브리핑실에서 만나 질문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인의 진

실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회장은 "정부의 조치는 법을 쌓아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재 제한 조치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KBS·조선일보 지회장 등 5명의 서울지회장 대표단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 들러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 청와대 항의 방문의 취지를 설명한 뒤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성명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한편 기자협회는 통일부가 중앙일보의 프레스룸 이용을 금지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기자의 사무실 출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정부는 감성적 대응을 삼가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남북군사실무회담 8일 판문점서

제5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이행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오는 8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고 국방부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북측이 지난달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이나 평화의 집에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해왔다"며 "우리 측은 남북 장관급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남측 평화의 집에서 오는 8일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 북측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실무회담의 의제는 지난달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5차 장성급군사회담의 공동 보도문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문제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靑 "기자실 개편 TV 생중계 토론하자"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제안한 언론인 또는 언론단체와의 토론 형식과 관련, TV 생중계를 통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토론의 시기와 형식, 대상에 대해 열어놓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국민이 직접 듣고 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TV 생중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전날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이 한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 토론 응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어제 기자회견장이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 말고 공식 제안을 모르겠는데, 그 토론발언을 공식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토론 대상으로 통신, 신문사 편집국장, 방송사 보도국장이나 언론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언론단체 등과 협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대변인은 또 '청와대 등이 일부 정부기관에 공식발표 이외의 업무관련기사가 나오면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는 한 석간신문 보도에 대해 "과거 보도지침을 연상시키는 듯한데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 내린 적이 없다"며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이라는 문장 하나가 기사 근거로 제시된 전부인데, 최근 기자실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억지보도"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평화지수 노르웨이 1위 이라크 꼴찌

유럽 상위권...한국은 32위

노르웨이가 전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로 평가된 반면, 이라크는 가장 평화롭지 못한 국가로 평가됐다.

영국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처음 시작한 지난달 30일 발표된 '글로벌 평화지수'에 따르면, 121개국 가운데 미국이 바닥에 가까운 96위를 차지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상위 랭킹에 포함됐고, 러시아는 118위로 처졌다. 2위~5위에는 뉴질랜드, 덴마크, 아이

랜드, 일본이 포함됐으며 한국은 32위였으며 이탈리아(33위)가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하위 순서로는 이라크가 121위로 꼴찌였으며, 그 뒤를 수단, 이스라엘, 러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이 이어졌다.

평화지수는 지난 5년간 전쟁 관련 희수, 참전 중 사망 군인 수, 무기 판매 금액, 폭력 범죄 수준, 인접국가와의 관계 등 20개 기준을 설정해 결과를 산정하고, 국제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발표된 것이다.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등은 20개 평가기준에 대한 신뢰할 만한 분석이 어려워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 "사랑해요 육군" 아미(Army)서포터즈 병영체험



지난달 31일 육군본부 주최 병영체험에 참가한 아미(Army)서포터즈 회원들이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화력 시범을 관람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4급이상 공직자 군면제 사유 공개는 기본권 침해"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내년부터 효력 상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 이름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국회 별정직 4급인 정모씨가 병역면제 사유를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상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병역사상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병역사상신고공개법 제8조의 적용을 중지시켰으며 이 규정은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 관심도가 낮은 4급 이상 공무원들까지 병역사상 공개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예외없이 공개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영어 자동기억시스템!**

10년 영어공부 1년이면 OK!

- 기억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기억시켜주는 기적의 영어학습방법 AMS로 단축된 영어의 세계를 만나자!
- 학원이나 학습지보다 10배 이상 빠른 획기적인방법
- 특목고 조기 준비생, 각종 영어경시대회를 선형학습을 원하는 학생의 최적코스

**[성공사례 | 퍼펙트 AMS]**

**◆은상수상작 학생 조소현**  
(13세, OO초등학교 6학년 인턴)

"AMS! 나의 목적 달성 도우미"

안녕하세요? 저는 조소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6학년이 되는데요. 처음엔, "그냥 기계적"이라는 생각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견성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우 보는 학원(영어) Quiz 시험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길을 확신을 주시고, AMS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학교재엔 영어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의 영어가 많이 있고, 각종 영어 능력시험 등도 속편으로 거처먹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공인 말하기 능력시험인 ESPT에서 47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은상수상작 학생 신지영**  
(16세, OO중학교 3학년 경기도)

"영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크나큰 행운 AMS"

AMS는 짧은 시간에 비해 그 효력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배운 AMS 과정은 지금도 다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으며, AMS를 배우기 전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시간에 영어문장을 읽으면 친구들이 저보다 영어 발음이 좋고, 영어를 잘 읽고 이해한다고 부러워 합니다. 지도 좋아하고 부모님들 또한 좋아할 수 있는 판송까지 들어있어 저희 부녀는 매일 판송을 틀어놓고 영어공부를 합니다. AMS를 열심히 하면서도 안타깝게 것은 많은 친구들이 AMS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어학교재인 만큼 빠르게 홍보는 되었지만... 좋은 영어 공부법은 서로 공유해야하니까요. 지금도 제가 우연히 AMS를 발견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AMS의 활용분야** | 각 기종, 모든 학생 필수 - 유치원 초·중·고·대학생, 직장인, 주부, 일반등 전과정 단계별·수준별·영역별 8000개의 콘텐츠로 완벽구성

**AMS (주)AMS교육** | 대표 전화 1600-0596

**로템갤러리 Gallery RODEM**

직수입 엔틱 전문매장

# 로템갤러리

가구의 가격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각종 고급 침대

●진열상품 30%~최고70% ●특별기획상품행사

소파, 식탁, 의자, 테이블, 침대, 소파, 소품, 등구, 거울

찾아오시는 길 | 1기동편안

상당시빌 프라자 | 현대자동차 | 미래이동통신 | RODEM

대표전화: (062) 653-4022

몰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거